



주말에 꼭 가봐야 할 '소리마당'

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전통·현대, 동·서양의 소리가 시공간을 초월해 교차되면서 공기 중에 머문다. 길을 가다가도 알핏 들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든다. 오는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오송제평백나무숲 등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소리의 향연을 즐겨보자.

전통·현대, 동·서양의 소리 '시공간 초월'

판소리 다섯바탕

올해 '판소리다섯바탕'은 판소리를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소리축제만의 철학과 의욕을 담아낸다. 무대는 판소리 사설과 그림이 접목된 '갤러리 판소리 공연장'이 연출된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공연무대의 대형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박지윤의 강산제 '심청가'와 고은화·김영란 작가의 판을 시작으로, 윤진철 보성소리 '적벽가'와 김원·이기홍 작가(22일), 방수미 김세종제 '춘향가'와 박지은·장영애 작가(23일), 김세미 동초제 '흥보가'와 이은경·이일순 작가(24일), 남상일 정광수제 '수궁가'와 유대수 임택준 작가(24일)가 함께 소리에 색을 입힌다.



또 '짧은판소리다섯바탕' 무대에는 이광복 '흥보가', 고준석 '적벽가', 이다은 '춘향가', 민현경 '수궁가', 신진원 '심청가' 짧은 소리꾼 5인이 가을 하늘과 바람만큼이나 청량한 소리를 들려 줄 예정이다.

**23~24일 전당 뒤편 편백나무숲

산조의 밤

깊은 가을밤의 정서를 대변할 '산조의밤'에선 이태백(아쟁), 강정열(가야금)이 기악복주의 절정을 보여 줄 예정이다.

**23일 전당 모악당.

새 반란 '광대의 노래'

전통공연에서 항상 보조적 위치에 머물렀던 북이 '광대의노래, 고집'에서 새로운 반란을 꿈꾼다. 타악 명인들이 오로지 북 연주로만 무대를 꾸민다.

**23일 전당 연지홀.

월드뮤직 빅파티

'월드뮤직빅파티'에선 레게 소울&펑크밴드의 김반장과 윈디시티와 아코디언 트리오 모션 트리오(폴란드)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이 갖는 언어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23일 전당 야외공연장.

골든 마우스 쇼

축제의 대미는 '골든 마우스 쇼'가 장식한다. 이번 페막공연엔 판소리와 비트박스, 힙합, 랩 등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대동의 판극을 보여줄 예정이다.

**24일 전당 야외공연장.

더블빌(동시공연)

우리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더블빌(동시공연)'. 무대는 국경을 초월해 현대를 사는 음악가들의 고민과 새로운 실험, 경향을 비교음악 연주를 통해 조망함으로써 '음악'이 갖는 보편성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듀오 벳(한국)과 3proplemusic(타이완), 유지숙 명인(한국)과 위츠델리 파르렛(터키) 등이 각각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은 님과 동시에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즐거운 감상 포인트.

**22~23일 음악의 집

'통소'와 '네이' 비교감상

한국의 독특한 관악기인 북청사자놀음의 '통소'와 이란의 관악기 '네이'를 비교감상할 수 있는 더블빌 무대도 마련된다.

**24일 음악의 집.

창무극 '천명'

동학농민혁명 기념작인 창무극 '천명'은 용감하고 처연한 이 지역 민초들의 사랑과 투쟁의 기록을 만나는 시간. 도올 김용옥(원작·극본)과 작곡가 박법훈, 마당극 연출가 류기형, 명창 왕기석, 전북도립국악원과 정읍시국악단 등이 햇볕의 역사를 되새긴다.

**22일 전당 놀이마당.



소리프론티어

소리축제가 새로운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마련한 '소리프론티어'는 젊은 뮤지션들이 대적돌하는 한국형 월드뮤직의 장. 사전에 진행된 실연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오른 세 팀이 최종 경합을 치른다.

**24일 전당 모악당 앞 더블스테이지.

/정리: 정해은기자

전주 성매매집결지, 인권·문화예술로 다시 태어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9일까지 선미촌 기억의 공간 등 3곳서 '리본 프로젝트 기획전시' 진행 6명의 예술가들 작품 선보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1일부터 29일까지 선미촌 기억의 공간 등 3곳에서 공간과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선미촌 리본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재생산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닫혀있던 선미촌이 예술 전시회를 통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이사장 이강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선미촌 기억의 공간 등 3곳에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여성인권 침해의 공간에서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공간과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선미촌 리본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는 현재 선미촌 내 옛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기능을 전환한 곳으로, 시티가든인 기억의공간, 현재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696번가 성매매업소,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에서 나뉘어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참여 예술가는 고희숙(동양화), 김경경(문학), 김두성(조형), 김준우(커뮤니티 아트), 장근범(사진), 정문성(미디어아트) 등으로, 전시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

이와 관련, 전시회 첫날 기억의공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오프닝은 성매매방지법 13주년을 맞아 전국의 반성매매단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서단이 전주시의원과 이현정 작가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하는 토크콘서트, 음악공연과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이번 기획전시 외에도 현재 전주문화

재단과 함께 예술가들이 선미촌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 [안녕, 선미]' 등을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예술몽당(蒙堂)프로젝트-머리를 비우고, 영혼을 채우는 예술노동, 선미촌과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오가면 펼쳐지는 자유로운 예술실험'을 진행하는 등 선미촌 성매매업소의 기능 전환을 통해 서노송예술촌으로 가기 위한 왕성한 문화 예술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선미촌 내에 아트팩토리과 아트레지던시와 같은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등 기능전환사업을 통해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와 예술,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폐공기에서 최초의 설치미술전을 여는 것을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는 또 지난 6월에는 선미촌에 선미촌문화재생산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설치, 현재 선미촌 내의 토지·건물주와 성매매업소 업주, 지역주민, 선미촌문화재생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등 다양한 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0여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산맥처럼 전주를 단절시켜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점차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문화예술의 힘으로 여성인권과 주민들의 삶, 시민공약준수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신석정 선생의 문학사 조망

내일부터 이틀간 '석정문학제' 개최

(사)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는 '2017석정문학제'를 23~24일 개최한다. 문학제는 석정(1907~1974년)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신석정문학상' '석정문학제' '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문학사를 조명한다.

제4회 '신석정문학상'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석정문학관에서 열린다. 올해의 수상자로는 '담장을

허물다'(2013 창비)의 공광규와 '표면 장력'의 심유남 시인의 선정됐다. 이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애송되는 석정 시인의 시를 읽어보는 '전국 신석정 시낭송대회'도 열린다.

이튿날 오후 3시 전북호호회관에서 '나초 앞에 별이 내릴 때'라는 주제로 신달자 시인 등이 참석하는 문학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석정문학' 제30호 출판기념회도 더불어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전북무형문화재보존협회전 28일까지

(사)전북무형문화재보존협회(이사장 이종덕)는 오는 2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미래내에서 '제2회 전북무형문화재보존협회전'을 갖는다. 보존협회전은 도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과 공예분야에서 활동 노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전시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적 교류를 모색하는 자리다.

확장한 전주모필장의 '사동고리', 김선에 지승장의 '지승팔각함', 박인권 선자장의 '어피합죽선', 안근 옷장장의 '전철국당초문팔각보석함',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화종', 임성안 목조각장의 '목어', 천철석 소목장의 '전주장', 최대규 나전장의 '나전생화학 약상'을 비롯해 송재권 약기장의 '가야금'과 안영석 공예인의 '25현 가야금' 등의 작품에선 선조들의 그윽한 숨결이 느껴진다.

이종덕 이사장은 "공예문화는 기능 교류가 단절되면 새로운 작품 탄생이 어려울 뿐더러 작업활동의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허희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미디어아트 공연 '모자배달부 알렉스의 꿈꾸는 모자여행'을 22일 오후 4시와 7시 2회에 걸쳐 유치원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미디어아트 어린이 공연 '모자배달부 알렉스의 꿈꾸는 모자여행'은 모자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 향토 작가인 오치근 작가의 '아빠랑 은별이랑 삼진강 그림여행' 그림책을 함께 읽는 '공감책'으로 선정하고 '독서퀴즈' '짧막 소감문 쓰기' 등 소풍 공감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오후 7시에는 '오치근 작가'를 초청해 잘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전북 지역 이야기를 듣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작가와 만남'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 '내가 읽은 책 추천 글 전시', '그림책 삽화전시', '소중한 소장 도서 나눔 책꽂이', '올해의 다독자 선정', '대출권수를 2배로 확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해은 기자